



파라미타 지도자 기본과정 직무연수 현장

좀 더 가까이 좀 더 즐겁게...

강의를 경험중인 선생님들. 방학중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포교를 위해 전국에서 모였다.



신뢰감과 협동심을 강화시키기 위한 게임.

“자, 두 명씩 서로 마주보세요.”
1월 10일 서울 봉은사 선불당. 선재이벤트 이성훈 대표(41)의 말에 따라 주황색 수련복을 입은 30명이 주위 사람들과 짝을 이루기 시작한다. 같은 성(性)끼리 짝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성끼리 짝이 된 사람들은 조금 어색한 듯 멧뜨는 웃음을 흘리기도 한다.
“이제 짝의 손을 잡고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 칭찬해보세요.”
한 사람이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참 잘생기셨네요”라고 말하자 이내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라는 화답이 돌아온다.
칭찬에 수줍게 얼굴을 붉히는 사람, 파란대소를 하는 사람. 어색함은 떨쳐감치 사라져버리고 선불당은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

▶전국서 교사 30명 청소년 포교 위해 모여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이하 파라미타)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봉은사에서 지도자 기본과정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도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도자를 3단계(기본, 전문, 최고 과정)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연수를 처음 실시한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30명의 유치원·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원택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의 ‘인성과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종교의 역할’ 강의와 청

소년 상담론, 청소년 명상수련,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및 지도안 작성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10일 열린 ‘친교활동프로그램’ 강의는 청소년들과의 거리감을 좁혀주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열기가 높았다.

▶동심의 세계 직접 체험
“푸른 하늘 은하수~”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남자들이 동요에 맞춰 손바닥을 부딪친다. 학교에서는 호랑이 선생님일지 몰라도 여기서는 말 잘 듣는 학생일 뿐이다. 잠시 동

전국서 모인 교사 30명 봉은사에서 3박4일 연수 명상 수련·상담론·지도안 작성 등 체험 친교활동프로그램 통해 눈높이 교육 필요성 느껴

심의 세계에 빠져들어 본다.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하죠? 말로만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할 게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게임을 직접 해봐야 진짜 눈높이가 됩니다. 다시 상대방의 손을 잡아 보세요.” 이성훈 대표의 주문에 따라 선생님들은 마주보며 손잡고 일어설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잇달아 들렸다.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게임은 서로간의 신뢰감과 협동심을 강화시켜 줍니다. ‘왕따’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요즘을 필요한 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가 있어야 내가 있듯, 너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교훈을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게임이다. 어느 한 조가 여러 차례 실패한 뒤 성공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학생들 가르쳐줄 생각에 미상 즐겁기만
신호승(인천 정석항공공업고등학교·54) 선생님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하지만 힘든 표정은 아니다. 연수에서 배운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생각에 미상 즐겁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2003년 호주머니를 털어 지부조차 없는 인천에 최초로 파라미타 분회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학교에서는 종교 동아리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결국 이뤘다. 하지만 더 많은 분회를 만든 뒤 지부와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선 아직 걸음이 바쁘다.

한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파라미타 사무국의 조한국(38) 과장 또한 “종단과 포교원 및 산한단체와 연계 없는 활동은 어렵다”며 “교사불자연합회나 교수불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포교사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자 수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본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은 2007년 1월 전문과정을 거쳐 2008년 1월 최고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또 2007년부터는 각 지부에서도 기본과정을 개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교육 기회가 부여된다. 파라미타는 최고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에게 감사 자격증을 주는 등의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글=남동우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눈높이 포교를 위해 잠시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연수는 강의와 체험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엔침의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선물에도 최고!
생명의 빛
건강의 기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심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들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들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칙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 복대하고 편안하게 있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생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의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칙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칙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악물요법과 병행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칙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체온까지 42℃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307 정애영 ◆일일공휴일도 상담 합니다.